World's Leading Think Tank KDI

보도참고		
	보도일시	**2026년 11월 10일(화) 배포 시**
	배포일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
	배포부서	KDI 홍보팀 (044-550-4030, press@kdi.re.kr)
	담 당 자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205, jahyun.koo@kdi.re.kr)

지역의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R&D 구조 진단 및 정책과제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 **특허 공동출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서울·경기는 대기업 중심의 허브, 대전은 공공연구 중심, 그 밖의 비수도권은 산업 특화형 협력 구조를 형성**

○ 지역별 협력 주체와 기술 기반이 상이하므로, R&D 투자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구조의 보완이 필요

□ 2019~23년 공동특허 출원의 주요 기술 분야는 서울·울산의 수송, 경기의 컴퓨터 기술, 전북의 식품화학 등 지역별로 차이

○ 대구·광주·강원은 의료기술·의약품·생명공학, 경남은 엔진·펌프·터빈, 경북은 전기기계·장치·에너지와 재료·야금 등이 상위 분야로 나타남.

□ '지역의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R&D 구조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는 KDI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보고서 링크)

❖ 붙임. 연구보고서 요약문

1. 지역별 특허 공동출원 네트워크의 특징

▌2019~23년 공동특허 네트워크는 서울·경기의 대기업 중심, 대전의 공공연구 중심 등 지역별로 상이한 협력 구조를 형성

- 경기는 참여 주체 13,777개, 서울은 12,260개로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울의 현대자동차와 경기의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핵심 허브로 나타남.
- 대전은 KAIST·ETRI 등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참여 주체 3,280개, 공동출원 관계 4,037개의 공공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함.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화된 협력 기반이 나타남.

- 전북은 전북대학교·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의 협력이 집중된 가운데 평균 클러스터링 계수는 0.0723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경북은 포스텍 등을 중심으로 재료·야금·에너지 분야의 산업 연계형 네트워크를 형성함.
- 울산·제주·세종은 참여 주체 수가 각각 807개, 453개, 322개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네트워크 밀도는 서울·경기보다 높게 나타남.

  * 평균 클러스터링 계수는 연결된 참여 주체들 사이의 상호 연결 정도를, 네트워크 밀도는 가능한 전체 연결 중 실제 연결의 비율을 나타냄.

2. 지역별 공동특허 출원의 주요 기술 분야

▌공동특허 출원의 상위 기술 분야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

- 서울·울산은 수송, 경기는 컴퓨터 기술, 대전은 시청각 기술이 최상위 분야로 나타났으며, 서울·울산·경기에서는 전기기계·장치·에너지도 상위 3개 분야에 포함
- 대구·광주·강원은 의료기술·의약품·생명공학이 상위 3개 분야를 구성하고, 충북은 생명공학, 전북은 식품화학, 제주는 의약품이 최상위 분야로 나타남.
- 전남·경북은 전기기계·장치·에너지, 경남은 엔진·펌프·터빈, 충남은 토목공학이 최상위 분야로 나타남.

〈표 1〉 시도별 공동특허 출원 특징(2019~23년)

지 역	주요 강점 분야(상위 3개)		
서울	수송	전기기계・장치・에너지	의료기술
부산	의료기술	토목공학	측정
대구	의료기술	의약품	생명공학
인천	유기정밀화학	토목공학	전기기계・장치・에너지
광주	의료기술	의약품	생명공학
대전	시청각 기술	컴퓨터 기술	측정
울산	수송	전기기계・장치・에너지	의료기술
세종	유기정밀화학	경영을 위한 IT	생명공학
경기	컴퓨터 기술	토목공학	전기기계・장치・에너지
강원	의료기술	생명공학	의약품
충북	생명공학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계・장치・에너지
충남	토목공학	전기기계・장치・에너지	측정
전북	식품화학	생명공학	의약품
전남	전기기계・장치・에너지	측정	토목공학
경북	전기기계・장치・에너지	재료・야금	토목공학
경남	엔진・펌프・터빈	전기기계・장치・에너지	측정
제주	의약품	경영을 위한 IT	유기정밀화학

주: 공동특허 출원에서 나타난 상위 기술 분야로, 지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순위를 의미하지 않음.
자료: 특허청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3. 정책적 시사점

▌지역별 기술 기반과 협력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R&D 지원을 추진할 필요

- 지역의 강점 기술과 기존 협력 기반을 고려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업・대학・출연연 간 협력을 연구 성과의 사업화로 연결할 필요
- 지역 내 부족한 기술과 연구역량은 지역 간 공동연구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으로 보완할 필요